

비즈 프리즘 | 선수금 멋대로 사용...상조업체 주의보

“고객 돈은 내 돈”...심각한 ‘모럴해저드’

(도덕적 해이)

공정위, 상조업체 두 곳 수사의뢰
 채권보전없이 회사자금 15억 대여
 “선수금 부정 사용...고객 피해 우려”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일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파악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 1 뉴시스

결국 이번에도 주머니 돈이 썩지 않고,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었다. 일부 상조사 대표들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고객이 맡긴 선수금을 대표이사 임의로 사용한 상조회사 두 곳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상조회사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돌려줘야 할 돈을 임의로 대출해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A업체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법인 명의로 자신에게 회사자금 약 15억원을 대여했다. 이와 관련해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여러 번 주의를 받았지만 묵살했다. 또한 주주인

전 대표이사에게도 18억원을 채권보전 조치없이 빌려주고 이를 전액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설정했다.

B업체는 대표이사가 시장에서 월 수백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며 자신이 대표인 전산개발업체에 48억원 상당을 지불했다. 이 상조업체는 회계감사보고서에 단기대여금 2억원 감소라고 하고서 정작 상환은 누락시켜 회사자금을 외부로 유출한 의혹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상조업체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22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취득한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해당 상조회사의 대표들은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상조회사가 고객 선수금을 불법으로 사용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4년 전인 2015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여러 상조회사들이 수사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았다. 당시 소비자 선수금으로 구입한 168억원대 부동산을 본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에 무상 증여한 회사 대표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6년에는 상조업체 대표가 본인이 설립한 회사에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고 선수금 15억 원을 대여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일부 업체가 선수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유인이 높으며 상조업 종사자들에 경각심을 심어 주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한눈으로 보는 경제 16~20일

코스피지수	2289.19	↓	-12.8
코스닥지수	791.61	↓	-34.1
日 닛케이 지수	2만2697.88	↑	+0.52
中 상하이 종합	2829.27	↑	+15.23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08	↓	-0.01
환율 (원·달러)	1135.50	↑	+6.00
국내금값 (원/그램)	4만4640.48	↓	-494.33

지수는 20일 증가, 등락은 주간 집계.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운임의 10~20% 보상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항공편 지연 피해를 입은 승객에 대한 보상책을 22일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문제로 출발이 1시간 이상 늦어진 국제선 100편(국내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 탑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한다. 1~4시간 지연 항공편은 운임의 10%, 4시간 이상 지연한 경우는 20%를 보상한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했으면 지연 시간에 따라 공제 마일리지의 10~20%를 돌려준다.

아시아나항공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는 항공사 귀책사유로 운항이 2시간 이상 지연되면 배상토록 규정하지만, 사태 특수성을 고려해 1시간 이상 지연까지도 확대했다”고 말했다. 지연 항공편 탑승인원을 고려하면 약 2만5000명의 승객이 보상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 등 서비스 이상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도 마일리지 제공 등 추가 보상을 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아프리카 폭염...유통가 “특수를 잡아라” 여름상품 할인...전복 등 보양식도 인기

연일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훌쩍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체가 더위를 식혀줄 다양한 상품 할인 판매에 나섰다.

먼저 바캉스 준비를 돕는 기획전을 마련했다. 롯데월드몰은 28일까지 1층 아트리움에서 ‘바캉스 대전’을 연다. 여성 패션, 뷰티, 잡화, 스포츠 상품군 26개 브랜드의 여름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여성 패션 아이템들은 정가가 대비 최대 75% 할인하고 여름철 피부 관리를 도와주는 뷰티 브랜드 제품과 잡화 제품도 할인 판매한다.

이마트는 8월까지 다양한 물놀이 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입소문을 타며 화제를 모은 ‘홍학 파도타기 (대형)’와 2018년 신상품 ‘유니콘 파도타기(대형)’를 기존 가격 대비 30% 저렴하게 선보였다.

AK플라자는 8월2일까지 전 점에서 ‘바캉스...ing’ 기획전을 열고 관련 상품을 최



유통업체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을 조금이나마 식혀줄 다양한 할인 행사에 나섰다. 이마트가 판매하는 물놀이 용품(왼쪽)과 롯데마트가 선보인 보양식 전복. 사진제공 | 이마트·롯데마트

대 80%까지 할인 판매한다. 보양식 제품도 할인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8월1일까지 전 점포에서 대표 보양식 중 하나인 전복을 선보인다. 여러 마리로 구성된 팩 단위 상품과 함께 한 마리 단위로도 판매한다. 시원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국수 상품도 인기다. GS리테일이



유통업체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을 조금이나마 식혀줄 다양한 할인 행사에 나섰다. 이마트가 판매하는 물놀이 용품(왼쪽)과 롯데마트가 선보인 보양식 전복. 사진제공 | 이마트·롯데마트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지난 6월 선보인 유어스얼무김치말이국수는 최근 한 달간 20만개가 판매됐고 이달 초 출시한 유어스 자루소바 역시 최근 일주일 동안 10만개가 팔렸다. GS25는 최근 유어스비빔막국수를 추가로 선보였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T맵, 운전 중 전화·문자 이용건수 29배 급상승

인공지능(AD) 플랫폼 ‘누구’를 결합한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x누구’의 운전 중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었다. 특히 중장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5월과 6월 T맵x누구 서비스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운전 중 전화·문자 보내기 서비스는 1월 출시 후 6개월 만에 이용건수가 하루 7000건에서 20만 2400건으로 무려 28.9배 급성장했다. ‘T맵x누구’가 제공하는 음성 서비스 중 음악듣기를 제치고 사용 비중 2위(19.51%)에 올랐다. 1위는 목적지 검색이었다.

운전 중 전화·문자 보내기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는 40~50대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이 6월 한 달 동안 T맵x누구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40대(34.3%), 50대(26.4%), 30대(19.6%), 60대(9.8%), 20대(6.2%) 순으로 나타났다.

김명근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교육·퍼즐

에듀윌

위탁사에서 밝힌 채용하고 싶은 주책관리사는?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관리소장의 기본 덕목...‘문제 해결 능력·입주민과 친화력·도덕성’

주책관리사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위탁관리 회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 위탁사는 약 500개 내외가 존재한다. 채용은 위탁사에 따라 공채를 하는 회사도 있고, 기타 다른 방식으로 채용을 하기도 한다. 이력서를 들고 무작정 찾아오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등 채용 방식은 위탁사마다 상이하므로 선배 동문들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주책독특’이 턱중합관리(사전), 울산개발, 세화종합관리 채용담당을 찾아 관리소장으로 갖춰야 할 기본 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들이 말하는 인재상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입주민과 친화력이 있으며,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때문에 청렴함과 도덕성을 갖춘 관리소장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예비 주책관리사들이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자격증 취득’이라고 단언했다. 주책관리사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은 조정기능사 자격증이라고, 요즘에는 입주민이 친환경을 선호하



가산점을 주고 있다.

이 외에도 기전 기사나 경리 실습 등 관리사무소에서 3~6개월이라도 실무실습을 해 보는 것이 좋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단기간이라도 관리사무소에 취업을 해보길 권장한다. 근무 경험이 관리소장 취업이나 면접에 가장 큰 가산점이 된다.

또한 최근 주책관리사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은 20~25% 정도다. 업계에서는 합격 성비에 따라 마찬가지로 20~30%를 채용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 여성 관리소장의 장점은 섬세하고 꼼꼼한 업무능력을 들 수 있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는 경향이 있고, 아파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또한 조경이기 때문에 채용 시 많은 위탁사에서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5	2	4						
4					8	1	2	
1			8	9				
	3	1		4			7	
4	2				6		1	
1			9		7	4		
			8	1				
6	2	1				7	8	3
				7	2			

8		4		1				
5				9		7	1	2
1				7				
5				1				8
3	1	7			8	5	9	
8				3				7
				8			5	
2	6	5		4			8	
				9	5	7		

■ 스도쿠정답

6	9	1	2	7	9	4	7	8
8	7	5	6	4	1	4	2	9
4	9	2	3	1	8	7	6	5
8	3	8	4	7	2	9	5	1
1	6	9	5	8	3	2	7	4
7	2	1	4	4	5	6	8	3
1	5	4	8	3	6	8	1	2
2	4	9	5	6	3	8	7	4
6	1	9	7	4	1	2	5	8
3	5	8	2	2	4	1	8	7
2	6	5	1	4	7	9	8	3
9	3	7	8	2	8	5	6	1
6	9	4	5	9	3	8	2	7
4	2	4	5	6	9	3	7	8
7	8	8	2	2	7	1	6	9
5	1	7	2	1	4	9	6	3
1	8	6	7	7	8	6	8	4
2	1	7	1	3	6	8	9	5
9	3	1	6	9	5	4	2	8